

“도지사 경선 일정 연기해야”

민주안호영 의원, 김 지사 제명 따라 “후보 구도 급격히 흔들려… 도민 혼란 커져” “정책 검증 등 기대 어려워” 경선 일정 촉박함 문제도 지적… 16일로 경선 연기 제안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경선 일정 연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에 대한 비상 징계로 선거 구도가 급변한 상황에서 촉박한 일정으로는 공정성과 도민 선택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후보 구도가 급격히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도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처럼 선거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에도 중앙당이 기존 일정을 그대로 강행하려는 것은 결과 이전에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경선 일정의 촉박함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일정에 따르면 후보 등록은 4월 4일 하루에 그치고 경선은 불과 나흘 뒤인 8일에 실시된다. 이에 대해 그는 “사실상 등록 이후 곧바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4월 만에 정상적인 정책 검증과 선거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당초 결선투표가 예정됐던 4월 16일로 경선을 연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경선 일정 연기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최소한의 숙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해야 경선의 정당성이 확보된다”며 “중앙당의 속도가 아니라 전북의 시간, 도민의 판단 속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지사의 제명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만큼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소명 기회가 있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을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었으며, 최근 통화 사실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위로 차원의 대화였다”고 설명했다.

경선이 2차전으로 재편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는 “구도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이라며 “도민에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도지사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일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충분한 시간 속에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로 경선이 진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윤석열 파면 어느덧 1년… 다시 휘날리는 시민들의 깃발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도, 민생경제 안정·미래산업 도약 ‘두마리 토끼’

6~10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중기 육성자금 지원 등 집중

전북특별자치도가 6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민생 경제의 안정적 지원과 미래 첨단 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 도정 과제들을 집중 추진한다. 이철규 도 대변인(사진)은 지난 3일 오전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전북자치도가 민생 안정, 미래 산업 육성, 도민 안전 강화 등 전방위적인 도정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6일부터 2026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융자 규모는 총 3,300억 원(창업 1,000억, 벤처 200억, 경영 1,500억, 긴급대환 200억, 거처기간 연장 400억)으로, 자금만을 쥐는 돈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이어 8일에는 전주대학교에서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주관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도 출연기관 등 25개 기관이



원실장 주제로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점검하며, 고유가 피해 지원 등 정부 추경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7일 전북도는 경기도 소재 건강기능식품 기업인 (주)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 335억 원의 투자와 140명의 고용 창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능경제대회가 열려 39개 직종에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7일에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김인태 기업유치지

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해 도내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8일에는 총사업비 200억원이 투입된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 인프라’ 개소식을 열고 관련 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는 8일과 9일에는 RE100 얼라이언스 수소분야 및 에너지정책분과 회의를 잇달아 개최해 전북형 수소 산업 현안과 청정에너지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블 행락철을 맞아 도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6일부터 24일까지 주요 관광지과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소방본부도 7일 자동차 부품 공장에 대한 화재 예방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대형 화재 방지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만호 기자

“진안 100년 도약 기틀 완성하겠다”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성황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후 2시 진안을 진안공용버스터미널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움이에 나섰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오후 2시 진안을 진안공용버스터미널 2층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움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윤석정 전북야합본부 총재이자 전북일보 대표이사, 구동수 진안군노인회 회장을 비롯해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 안팎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열기를 뿔어냈다.

특히 이수성·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황명선 최고위원, 안호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등 정계 주요 인사들이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 전 예비후보의 두터운 중앙 인맥과 정치적 무게감을 입증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6년간 현정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지역 곳곳을 누비며 군민들의 삶의 지혜를 배웠다”며, “군민 여러분의 신뢰 덕분에 20년 숙원인 용담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 확정, 광역상수도 공급 3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해결, 양대 도민체육 유적 등 불가능해 보였던 과업

들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강조했다. 이어 전 예비후보는 “진안 100년의 도약을 위한 3대 핵심 비전을 발표하며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군민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태어나서부터 노후까지 걱정 없는 ‘진안형 기본소득’ 완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농업 혁신과 판매·유통·일손 걱정 없는 ‘농업경제 실현, 마이스와 용담호 등 정경자원을 활용한 ‘1,000만 명 방문 글로벌 생태 건강·치유·관광도시’ 조성 등이

다. 전 예비후보는 “3선 도전의 무게를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진안을 위

해 흘릴 땀방울이 많이 남아 있다”며 “3선의 강한 힘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 일은 시작한 사람이 책임지고 마무리한다는 자세로 진안의 100년 기틀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92)은 “2만4,000여명(진안군민)이 탑승한 대형버스(진안군) 운전은 아무런 경험도 없는 초보운전자(군수후보)에게 맡길 수 있겠냐”며 “6년간 충분한 경험을 쌓은 운전지(군수후보)에게 맡겨야 승객이 목격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진보당 도당 “김 지사, 현금 살포 책임지고 즉각 사퇴·불출마하라”

진보당 전북도당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향해 즉각 사퇴와 지방선거 불출마를 강하게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야 할 도지사가 부패 정치의 중심에 섰다”며 “고물가와 부채에 시달리는 도민들에게 깊은 허탈감과 모욕감을 안겨주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지사의 돈을 즉시 돌려받았다는 해명에 대해 “구차한 변명으로 모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

고 일축하며, “지사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출마 기회를 엿보는 행태는 도민을 두 번 기만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발언에 나서 김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백 후보는 “미리 준비한 가방에서 돈을 꺼내 일일이 건네주는 현직 도지사의 오만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직자로서 신뢰를 잃은 김 지사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도민을 욕되

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지사의 사퇴와 불출마가 전북 정치를 깨끗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확신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조치일 뿐 사태의 끝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만호 기자

민주 도당, 군산시장 본경선 진출자 확정

강임준·김영일·김재준·나종대 등 4명… 본경선은 추후 공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 진출자 4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경선에 진출한 후보는 강임준·김영일·김재준·나종대(가나다순) 등 4명이다. 이번 군산시장 예비경선에는 총 8명

의 후보가 출마해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예비경선에는 강임준·김영일·김재준·나종대 후보를 비롯해 박정희·서동석·진희안·최관규 후보가 참여했다. 경선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군산시 관리당원 100% AB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날에는 당원이

전화를 받는 방식으로, 둘째 날에는 안내된 번호로 당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개표 결과는 각 후보 측 참관인 인 회 하에 확인했으며, 득표율과 순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본경선에서는 4명의 후보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곧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득표율 상위 1·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오만호 기자

“언론 통해 탈락 통보… 국힘 탈당 선언”

김광중 도지사 예비후보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했던 김광중 후보가 공천 배제 과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통보도 받지 못한 채 언론 보도를 통해 공천 탈락 사실을 알게 됐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문자 한 통 받지 못했고 제자가 뉴스를 보고 알려줘서 탈락 사실을 알았다”며 “이 같은 방식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후보는 공천 심사 과정에서 납부한 비용 문제로 언급했다. 그는

“당직비와 공천 심사비로 5백 5십만 원을 납부했음에도 최소한의 통보조차 없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공천 배제 사유로 거론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 후보는 “속은 더불어민주당, 겉은 국민의힘이라는 표현은 전북의 특성상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적 사고를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이를 문제 삼아 배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내 특정 인사와 종교 세력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전북 정치가 특정 세력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공천 배제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미 탈당을 결정한 만큼 향후 행보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북도지사 선거 원주 여부와 함께 서울 강남을 지역 재출마 가능성도 언급하며 정치적 진로를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는 자신의 탈당을 “오히려 새로운 출발”이라고 평가하며 “전북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